**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ㆍ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ㆍ코로나19 대응 2차 행동지침:** 다음 면 참조

**ㆍ헌금:** 가능하면 매주교회 구좌로 송금해주시고,

어려우시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함께 봉헌하세요.

**ㆍ생일축하:** 배수융(송수미 집사 부군)

**\*\* 함께 기도합시다 \*\***

1)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2)확진자들을 치유해주시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3)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더욱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4)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5)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

6)경제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잘 넘기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막9:14-29 월/막9:30-50 화/막10:1-16 수/막10:17-31

목/막10:32-52 금/막11:1-19 토/막11:20-33 일/막12:1-17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73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3월 22일** | **3월 29일** | **4월 5일** | **4월 12일** |
| **예배기도** | 신일수 | 김평님 | 강일구 | 한상철 |
| **말씀일기** | 정수연 | 손민해 | 민경웅 | 정정아 |
| **안내위원** |  |
| **헌금위원** | 가족 중 |
| **애찬봉사** |  |  |  |  |

**37-12호 2020년 3월 22일**



 **“너는 내 것이라”** (사43:1)

주일예배: 12:00 각 가정

유초등부예배: 12:00 각 가정

청소년부예배: 12:00 각 가정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잠시 휴강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가 정 예 배 (4. Fastensonntag)**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예배부름/Eingangsgebet 시107:8-9 |
| 찬송/Gemeindelied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
|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127번 |
| 찬송/Gemeindelied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
| 기도/Gebet 신일수 권사말씀일기/Bibeltagebuch 정수연 집사찬양/Chor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누가 10:25-37  |
| 설교/Predigt **’사는 길’**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설교자찬송/Gemeindelied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봉헌/Kollekte 봉헌송: 김한진 장로  |
| 광고/bekantmachung주기도송/Vaterunser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축복/Segen 손교훈 목사**\*\*교회 구좌**Baek, Han-Jin KimIBAN:DE29 3007 0024 0598 1931 00BIC: DEUTDEDBDUE |

 |  |  |

◀ **코로나19 대응 2차 행동 지침** ▶

유럽 및 독일에서도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직운영위원회가 긴급히 의논하여, 2차 행동 지침을 정했습니다.

1. 3월 15일부터 주일예배 및 토요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2. 현재로서는, 주일 온라인 예배는 실시간 라이브 중계는 아니고, 미리 목회자 가정에서 드린 예배 실황을 녹음하여 준비된 음성파일을 늦어도 주일 11시 45분쯤에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아침 7시 전에 녹음 파일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교우들은 가능하면 12시 조금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12시에 함께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장소는 달라도 시간은 함께). 부득불 시간을 맞추기 힘든 분들은 다른 시간에 드리셔도 됩니다. 다만 서로를 확인 격려하며 축복하기 위해, 간단한 예배후기(예: '예배 잘 드렸습니다')나 예배장면 인증샷 등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도 및 말씀일기 순서 맡은 분들은 자기 순서에 해당하는 원고를 작성하시고 그것을 녹음하셔서 목회자에게 토요일 중으로 보내주시면, 예배 실황에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녹음이 힘든 분들은 원고를 보내주시면 대독하겠습니다). 생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순서 맡은 분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충성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교우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예배가 미뤄지거나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감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6. 각자 따로 있지만 또한 주 안에 함께 있는, 성도의 신비한 사귐을 경험하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4일

뒤셀도르프선교교회

**<설교>**

 **사는 길**(눅10:25-37) 손교훈 목사

20세기 중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혼란스러운 20세기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우리에겐 출구가 없노라(No exit)”고 하소연했습니다. 그의 사상에 영향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출구가 없는 것인지? 그 답은 역대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대하7:14). 3월 1일, 사순절 첫주일에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엄마 뱃속 아기집에서 와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기 위해, 지금 여기 내 인생 집이 주님 사시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치유하시는 목적도 “집으로” 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집에서 승부가 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내 인생 집에 모셔들이면-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그 분께 엎드리면, 이제 나는 하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에, 막2:1-17 본문을 통해 ‘집에서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다양한 형태의 21세기 바벨탑.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시33:16). 코로나19로 인한 대 위기 시대를 살며 우리는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살리”십니다**(시33:18-19). “그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기만을(시33:22)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편33:16-22 본문으로 지난 주일에 ‘군대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전해 드린 말씀입니다.

제 **신학대학원 동기인 여 목사님의 언니**가 대구 사시는데, 얼마 전 확진을 받으셨고, 며칠 사이 급격히 안좋아지셔서 결국에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대 ‘접근금지’라 돌아가시기 전에 고인과 가족들이 전화로 통화한 것이 유일한 접촉이었고, 장례 절차도 언니 남편과 자식 둘만이 가서 시신을 화장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니의 죽음을 직접 경험한 동기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마치 강도 만난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공포와 불안이지만, 실제 가족의 죽음까지 경험하게 된 이에게는 오늘날의 상황이, 멀쩡히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뺏기고는 흠씬 두들겨 맞아 곧 죽게 된 것과 같은 현실로 이해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현실 이해입니다. **원치 않는 강도를 만나 곧 죽을지도 모르는 어이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또 언제 어디서 갑자기 비슷한 상황에 처할지 몰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강도만난 자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한국에서 몇몇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다 코로나19 전염병 집중 전파자 역할을 하게 되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무책임한 태도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비슷한 오명을 뒤집어쓰는 길을 교회가 자초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이웃이 강도 만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아무도 모르는 사이 나도 그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저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처럼, “피하여 지나”가 버린 레위인처럼, 나만 거룩하면 된다,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하는 자세는 곤란합니다. **강도만난 이웃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는 결코 우리가 환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악한 것조차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을 피해 지나간 예수님 당시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비겁하고도 이기적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우리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우리가 코로나19를 진정 이겨내는 게 아닐까요?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가슴에 와 박힙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결국 **사랑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배려도 아니라면, 그저 우리끼리 모이기에 급급한 것이라면 참으로 헛된 것이지요. 향우회나 동창회만도 못한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예수님이 뜬금없이 선포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율법교사가….예수를 시험하여….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27)습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28).

무슨 얘깁니까?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중요한 것은 이제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애초에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율법교사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더니, 이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또 묻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질문만 늘어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율법교사와, 오늘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율법교사”를 흔들어 깨우치시려, 힘들게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37) 입니다. **‘누가 네 이웃인지 묻지만 말고, 자비를 행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네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험하려는 율법교사는 **처음부터 의도가 잘못되었고, 그렇기에 그의 질문 안에 이미 문제**가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이라는 것을 **따내려는 자세**입니다. 얻어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28).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럴수록 심리적 거리는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서로를 피하지 말고, 누가 더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더 외로운 사람이 없는지, 서로 연락하고 살펴야 합니다. 마음만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며싸매주고 돌봐주어야합니다.

결코 **피하고 외면하는 길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힘든 때일수록, 사랑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 거리 두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서로 조금씩 갈등하고 다투더라도, **함께 모여 때론 토닥토닥, 때론 티격태격 하며 울고 웃던 시간들이 그 어울림들이-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사실, 부득불 스스로를 자가 격리시켜 사는 우리들, 종일 **가까이 붙어지낼 수 밖에 없는 가족들로 인해 이러저러한 행복을 맛볼 수 있지만, 의외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서로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사랑하시길 빕니다. 멀리가서 찾지 않아도, **가장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내 남편이요 내 자식들이요, 내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를 행하라-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비용이 더 들면….돌아올 때 갚으리라”(35) 주막 주인에게 부탁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잠시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일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그 이름을 부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랑이 우리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촌이 강도 만난 것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고, 언제 강도처럼 나를 칠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길-진짜 사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핑계가 되고, 주님이 핑계가 되어 세상을 이웃을 찌르지 않게 하옵소서. 물리적 사회적 거리는 멀리 두더라도, 그럴수록 도리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 너와 나 사이의 마음의 거리-기도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우리를, 이 세상을 고쳐 주소서.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게 진정 ‘사는 길’로 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